

200명 이상 학교 오늘부터 1/3 등교수업

도교육청 학사운영 발표

60명 이상 유치원 31곳
초·중·고 117개교 적용
돌봄·기초학력 지도 제외

도내 200명 이상 학교에 대해 전체 인원의 1/3에 한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등교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도내 60명 이상 유치원, 200명 이상 유·초·중·고등학교는 1/3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31개원, 초등학교 57교, 중학교 32교, 고등학교 28교에 이른다. 200명 미만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수학교(학급) 수업 방식도 자율로 결정한다.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 지도 경우에 밀집도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관련 사안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석문 교육감이 16일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당초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3단계 수준의 대책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초등학교는 긴급돌봄 문제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사 일정 마무리를 위한 기말고사 등의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1/3 등교수업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사 일정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험생들의 대입 지도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학년 원격 수업 시행 학교도 안내했다. 이날 기준으로 대고 등 9교인데, 1·3학년 대상 김녕중까지 포함하면 10교에 이른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일정은 이날 집계 결과 12월 21~24일 시행 계획인 학교가 46교로

가장 많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하루하루 힘들지만 코로나19 터널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손 잡고 이 겨울의 고비를 넘어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올해 학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산 진달래밭 90cm 눈 내렸다

제주기상청 “산간지역 오늘까지 눈 날림”

제주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산간과 중산간 주요도로에서 교통 통제가 잇따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6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제주 남부와 북부, 서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 그러나 제주산지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사흘째 유지되고 있다.

제주산간에는 최대 9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쌓였다.

산간 주요 지점별 적설량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윗세오름 27.7cm, 어리목 32.9cm 등이다. 이밖에 서광 0.5cm, 유수암 6.9cm, 산천단 2.5cm, 금약 4.9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라산 진달래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89.5cm의 눈이 내렸다.

전날 오후 제모습을 찾았던 산간 주요 도로도 다시 빙판길로 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축산단지 입구~1100고지 구간에서는 월동장비를 갖춘 대형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소형차량은 전면 통제했다.

또 5·16도로 중 제주의료원~성판악 구간과 평화로 중 유수암교차로~캐슬렉스 골프장 구간, 한창로 동광회전교차로 구간, 제1산록도로 관음사~노루쟁이 삼거리 구간, 제2산록도로 전구간에서도 소형 차량에 한해 교통 통제가 이뤄져 월동장비를 갖춰야 진입이 가능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

보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식민잔재 청산 실태조사 본격화되나

관련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조사 근거 마련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도내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실태조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에는 도내 전체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현재 교육청 내의 식민잔재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도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 등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청산활동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전

도, 농장·철새도래지 정밀검사… 공항만 검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타지역 가금(닭, 오리, 메추리) 농장과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까지 가금류 사육농가와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 등을 대상으로 AI 항원·항체를 검사한 결과, 총 7903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9월부터 타 악성기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과 연계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항원(H5N8형)이 확인

됐고 이어 종달, 강정, 애월지역에서도 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돼 AI 발생 특별관리지역 내 오리류 농가 긴급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타 지역의 고병원 AI 확산에 대응해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을 이용한 도내 반입 차량 및 공항 화물청사를 통한 반입 물품에 대해 검역요원 21명을 배치해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의 불법 반입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입도객·반입차량 소독과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현재 반입금지 상황은 >가금류(전국) >가금산물(전남(광주)·전북, 경북(대구), 경기(서울·인천), 충북) 등이다. 백금탁기자

화북·도련 동부공원 주택 건립 2023년 시작

국토부, 공급지구 지정고시… 1947세대·4479명 수용

제주시 삼화지구 남쪽에 위치한 화북·도련 동부공원에 대한 주택 건립 사업이 2023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촉진지구는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이며,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공원 사업에 22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2023년 착수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택지와 관련해 동부공원의 토지 이용은 1947세대, 계획인구 4479명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423필지다.

국토부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동부공원 사업은 감정평가와 함께 토지주와의 보상 착수에 들어간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밟는다.

동부공원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독자제보 750-2231

노인 1만8000여명에 장수수당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 1만8000여명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한 장수수당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수 노인으로, 지원액은 월 2만 5000원이다. 11월 기준 1만8107명에게 48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자들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
CONGRATULATIONS

축
CONGRATULATIONS

<p>농림축산식품부, 1월의 농촌융복합사업인 선정</p>	<p>농림축산식품부, 10월의 농촌융복합사업인 선정 국무총리표창</p>	<p>2020년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p>	<p>2020년 제2회 농촌융복합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부장관 최우수상 수상</p>	<p>제2회 자청배제주농촌문화상 농업경영부문 수상</p>	<p>국제슬로푸드협회 산하 슬로푸드 생물종다양성재단 '맛의 방주' 등재</p>	<p>제10회 제주 수출인의 날 수출장려상 수상</p>	<p>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여성농업인) 수상</p>	<p>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 (유통가공) 수상</p>
농업회사법인(주) 제주클린산업 양홍석 대표	제주생명농조조합법인 김숙희 대표	주식회사 청원(생각하는 정원) 성주엽 대표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보통빛) 홍은희 대표	제주물리루민정학교 영농조합법인 부정선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20호 리굴약집 김희숙 대표	주식회사 일해 김영훈 대표	비자림농원 강미희 대표	농업회사법인(주)테마의명제주 김명수 대표

b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